



■ 라틴아메리카 언어학 동향

신 태 식

언어학의 역사는 문자 체계가 확립되어 이루어진 기록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언어는 인류 문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언어 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은 철학이나 물리학, 역학과는 달리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소쉬르와 촘스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위대한 언어학자의 등장과 더불어 비로소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 후로 세계 전 지역의 언어학은 전자와 후자의 방법론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언어학 또한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언어학이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며, 그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언어학은 'lingüística'로 명기하기보다는 'filología'로 정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언어학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앞의 두 단어가 모두 한국어로는 ‘언어학’으로 번역되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처럼 언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철학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필자 또한 라틴아메리카 언어학의 개념과 정의를 선행조건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언어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병기 표기라는 교육책을 빌려 언어학(filologia, 이하 언어학으로 표기한다)로서의 라틴아메리카 언어학의 동향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다루어지는 대다수의 언어 연구는 언어학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 방법에 의하면, 한 문화의 연구는 그 언어의 진화의 고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연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촘스키의 생성문법 이론은 인간언어의 보편성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선천적인 언어능력을 탐구하는 ‘일반성’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언어학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본유적으로 타고난 언어능력보다는 자기 종족이나 민족,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역사, 사회를 연구하고자 한다. 일례로, 라틴아메리카 언어학의 중심축인 멕시코의 경우 ‘스페인어’가 아니라 ‘멕시코’ 스페인어의 고유한 양식과 용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그 연구의 시발점이 멕시코시티였고 이를 통해 멕시코 ‘표준’스페인어를 규정하였다. 다음 단계는 방언학을 통해서 지리적·사회적 요인에 따른 멕시코 스페인어의 변화 양상에 대한 기술과 각 방언들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연구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멕시코’ 스페인어를 종합적으로 규정해갔다. 또

한 그 작업을 통해 미래의 스페인어의 변이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멕시코 우남대학과 그 소속 연구소 ‘히스패닉 언어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와 똑같은 흐름이 언어학이 구축된 콜롬비아나 쿠바, 페루 등지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언어학의 관점에 기초한 라틴아메리카 언어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스페인어의 기원이나 전반적인 역사적 변화— 구대륙의 스페인어(Castellano)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연구됨—보다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스페인어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언어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공용어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은 ‘라틴아메리카적인’ 역사적 변화와 변이에 큰 관심과 연구 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멕시코의 언어 역사에서 16세기 이후에서 20세기 초까지가 가장 라틴아메리카적인 언어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의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미래의 스페인어가 당면할 언어학적인 문제들 또한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언어학은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을 중심 목표로 삼고 있어서 어떤 지역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 수준의 첫 단계는 객관성을 보이는 유형·무형의 언어 자료 수집이며, 그 다음 단계는 철저히 연구자의 개입을 차단하는 코퍼스 작업이며, 그 다음은 채록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가설을 검증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경험적인 방법을 토대로 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언어학 또한 물리학이나 역학처럼 학문의 한 분야로 꾸준히 성장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1980년대까지 언어학 일색이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서, 레마(Lema), 트레비뇨(Treviño), 하와제크(Hawayek) 등이 주축이 된 우암(UAM)의 학자들과 콘펠트(Kornfeld), 샵(Saab) 등 아르헨티나의 코마우에 대학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문법의 공시적 접근 방식을 통한 스페인어를 연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로페 블란취(Lope Blanch), 루나(Luna), 콘셉시온(Concepción, 밀라그로스(Milagros) 등이 주축이 된 멕시코 국립대학 학자들은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즉 filología(언어학)적인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연구의 폐쇄성과 지나친 전문성, 세분화에서 탈피하고자 매년 언어학술대회를 두 언어학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호 간에 연구자들의 교환 연구가 실행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학문의 벽과 경계를 차츰 허물어뜨리는 가시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